주가	환율	금리
-7.37	-3.30	+0.05
1,380.07 (코스피지수)	935.20원 (원/달러)	4.78%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96.61	(-4.08)
다우(7일)	12,156.77	(+51.22)
나스닥(7일)	2,375.88	(+9.93)
닛케이	16,215.74	(-177.67)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7.42엔	(+0.07)
유로 달러 환율	1.2777달러	(+0.38)
3년만기 회사채	5.09%	(+0.05)
콜금리	4.46%	(-0.03)

집값 잡겠다던 '정부 8·31종합대책'

지방 부동산 경기만 위축시켰다

14개월새 수도권 13%·서울 강남 18% 급등
광주·전남 4%대 그쳐…실질 상승률은 제자리

지난해 '8·31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는 지속된 반면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지방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떨어지거나 소폭 상승에 그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 사이에선 정부가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부동산정책이 애꿎은 지방 부동산경기만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통계청과 국민은행에 따르면 8·31대책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8월말과 비교한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평균 7.9%로 집계됐다. '3·30부동산대책'과 '버블논란'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정책 속에서도 14개월간 무려 8% 가량 뛴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아파트값이 13.6% 오른 가운데 강남은 17.9%나 급등했다. 정부가 부동산대책의 '타깃'으로 삼았던 강남이 되레 전국의 아파트값을 견인하면서 강북(7.3%)의 2.5배에 달하는 강세를 보인 것이다.

경기지역도 같은 기간 평균 14.4% 상승한 가운데 ▲과천 30.1% ▲군포 26% ▲의왕 25.5% ▲안양 24.3% ▲고양 24% 등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 아파트값은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였다. 광주·전남의 아파트값은 8·31대책 이전보다 각각 4.4%, 3.5% 올라 같은 기간 12.7% 급등한 수도권과 대조를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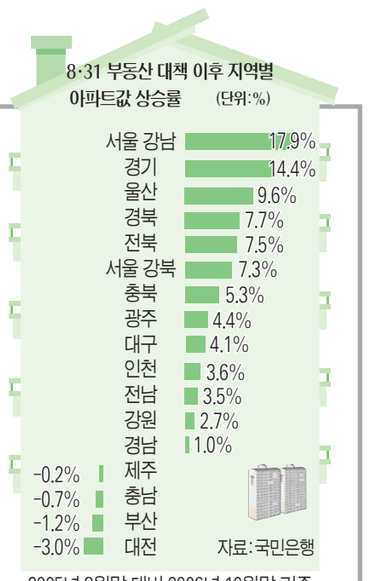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8·31대책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아파트값 상승률은 극히 미미한 형편이다. 광주·전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광주·전남의 소비자물가는 각각 1.93%, 1.54% 올라 아파트값 상승률을 바짝 뒤쫓았다.

광주는 구별로 남구와 광산구가 잇따른 아파트 신축 등으로 각각 8.7%, 4.8% 올랐을뿐 ▲북구 4.2% ▲동구 2.9% ▲서구 2.3%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남지역도 목포와 순천이 각각 5.2%, 4.2% 상승한 가운데 광양은 -0.9%로 오히려 떨어졌다.

이같은 상황은 그동안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였던 지방의 타 시·도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대전이 같은 기간 3% 떨어진 것을 비롯해 부산 -1.2%, 충남 -0.7% 등은 아파트값이 '뒷걸음질' 했다.

경남과 강원의 아파트값은 각각 1.0%, 2.7%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가 각각 2.56%, 2.71% 올라 아파트값 상승률을 웃돌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2005년 8월말 대비 2006년 10월말 기준

광주 수출中企 해외바이어 초청

110만달러어치 수출 계약

광주지역 수출 관련 중소기업들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통해 11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광주시가 8일 광주 상무지구 센트럴파크호텔에서 그동안 해외 시장개척 활동을 전개해 온 관내 11개 중소수출업체를 대상으로 6개국 13명의 해외바이어를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4개 업체에서 110만달러 현장계약을 체결했다.

시 수출상담회에 참여한 의료 및 위생용품 생산업체인 (주)태봉(대표 이봉상)은 지난해 광주시 시장개척단 사업에 참여해 인연을 맺게 된 러시아 모스크바의 병원용 위생용품 제조업체인 에버스팜사와 소독솜과 위생 물티슈 등 22만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무항생제 돼지고기 내달 첫선

전남도 3년내 100농가 15만마리 확대

최근 친환경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항생제를 먹이지 않은 돼지고기가 12월 초 첫 선을 보인다.

8일 전남도는 오는 12월 초 '돼지 광역브랜드 사업'에 따라 무항생제로 사육된 돼지가 출하되는 시점에 맞춰 전남 돼지 광역브랜드를 본격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무항생제 돼지고기 브랜드 명명식과 시식회도 여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현재 나주축협이 주관하고 있는 전남 서북부 돼지 광역브랜드 사업에는 18개 농가가 참여해 친환경 축산인 무항생제 돼지를 시험 사육하고 있다. 또 전남도내 41개 농가(3만 1천마리)에서 돼지 광역브랜드에 참여키로 확정했고 전남도는 앞으로 3년 동안 100개 농가 15만마리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농협 팜스테이 年 11억 소득

전남지역 30곳 운영…이용고객 8만7,000명

참여농가 호당 390만원 소득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가 운영하는 전남도내 15개 시군 30개 팜스테이마을이 총 8만7천여명 방문객에, 연간 11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 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들 마을을 이용한 고객은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8만7천여명에 달했고, 1일 이상 마을에 체류한 방문객수도 2만3천여명으로 주 5일제 등 영향이 농촌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마을당 평균 방문객수는 2천900여명으로 지난해 대비 1천300여명이 증가했다. 곡성군 봉조리 및 구례 상위마을 등 연간 방문객수가 4천명이 넘는 마을도 7개나 됐다.

또 농특산물 판매와 식사 및 숙박·체험비 등으로 연간 11억원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고, 참여농가 호당 평균소득은 390만원이며, 최고 소득은 1천800만원을 웃돌았다.

팜스테이마을 지정 연수별로는 3년차 이상인 마을(16개소)이 전체 수입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마을의 호당 평균소득도 530여만원에 달해 3년차 미만인 마을과는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팜스테이마을을 방문한 도시민들은 화장실 및 주차장 등 편의시설과 이정표, 체험장, 교통편, 프로그램 등을 불편거리로 꼽아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지난 여름 해남군 북평면 동해 팜스테이마을을 방문한 광주지역 어린이들이 고추를 따며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어린이들은 곤충채집, 김치담그기 등 농촌체험행사를 가졌다.

농협 우수농산물 홍보

오늘부터 목포 농산물 센터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는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9~11일 농협목포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GAP 인증농산물 홍보·판촉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나주배원예농협 배작목반 등 전남관내 GAP 인증을 획득한 생산자조직(농가)들이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과 '껍질째 먹는 안심사과'를 비롯한 타지역 GAP인증농산물 10여점이 전시되며 우수농산물의 생산이력 시연 및 시식행사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GAP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의 필수기준(74개 항목)을 충족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생산자는 토양·수질 및 출하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 대형마트, 지역농축산물 많이 산다

신세계 이마트 등 구매율 70% 이상

광주 신세계 이마트와 빅마트 등 대형마트의 지역 농수축산품 구매율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 신세계 이마트와 빅마트 등에 따르면 광주 신세계 이마트 4곳의 올 들어 9월말까지 광주·전남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구입비율은 전체의 70%가량에 이른다.

광주 신세계 이마트가 거래하는 지역 농축산물 업체(수수료 매장 제외)는 야채가 6곳으로 가장 많고, 양곡과 건해산물 각 3곳, 청과·축산·선어 각 2곳, 반찬 1곳 등 총 19곳이다.

광주·전남 16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빅마트의 경우 올 들어 10월 말까지 지역 농축산물 구입비율은 전체의 85%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320억원 어치다. 품목별로는 한우와 양곡은 100%이고, 야채 95%, 축산 90%, 수산물·청과 각 60%다.

광주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지역 법인인 광주 신세계는 매장별 바이어를 통해 지역 농축산물 이용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등 매년 이용률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함평종자관리지소 내달까지 씨감자 보급

국립종자관리소 함평지소(소장 민주석)는 2006년산 봄감자 보급종 춘기분을 다음달 말까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되는 씨감자 보급종은 '수미'와 '조풍'으로 20kg들이 골판지 상자로 포장돼 있으며 공급량은 수미가 132t, 조풍이 1t이다. 문의 (061)323-0702.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 생산부터 수확 후 유통단계까지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농식품 위해 요소를 종합 관리하는 제도로, 기존의 국가인증제도인 품질인증과는 달리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민간인증제도이다.